

2025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창작준비지원 】심의평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경우 계획의 독창성과 시의성, 구체성을 고루 보여주었다. 특히, 치열한 사회·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적 형식을 시도한다는 점, 전쟁과 디아스포라라는 세계사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의 현실과 치밀하게 연계하여 사유한다는 점을 인상 깊게 평가하였다.

경기문학 창작준비지원의 문학 분야에 지원해 주신 분들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심의 위원들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창작될 결과물이 해당 문인의 문학에 어떤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추가로 논의하였다. 예술적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활동 계획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창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또한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신작 창작을 위한 계획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절차도 이어졌다.

비대면 심사 후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모여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이어졌다. 다행히 선정자들이 장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따로 안배하지는 않았지만, 청년 작가들의 선정 비율도 적당하였다. 활동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멋진 결과물을 만나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한다.

2025.3.5.

심의위원

오은 (시인)

김강 (소설가)

소종민 (문학평론가)

이은란 (문학평론가)